

##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23.4.11일)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살펴 보면, 세계경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과 유로지역은 2월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3월 들어서는 은행부문 불안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커지고 고용 상황도 둔화 조짐을 나타내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경제활동 재개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원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는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유로지역에서는 계속 높아지는 등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부문의 리스크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는 3월초까지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전망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상당폭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3월 이후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 국내 경기를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4분기중 성장을 은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연

간 성장률은 IT 경기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전망치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 부진 완화와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물가 상황을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지난 2월 4.8%에 비해서는 낮아져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급등했던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그간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던 가공식품 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기 시작한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근원인플레이션율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4.0%과 3.9%로 전월 4.0%와 동일하거나 소폭 낮아지는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에는 3%대로 낮아지고 연말에는 3% 수준을 나타내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 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2월의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물가전망에는 산유국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의 시기와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받아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국내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의 상방 요인과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의 하방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1,300원대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3월 중순 이후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폭은 축소되었습니다.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그리고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전망대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함께 국내외 금융부문의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중국경기 회복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